

저의 영적인 삶에 유익을 주는 습관 세 가지를 최근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들기입니다. 감사한 것을 생각나는 대로, 소리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고백할 때,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할 때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셋째,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소리 내어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 이어서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멕시코 알아가기(전화문화)

전화 문화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화를 상대방에게 걸어서 통화를 못하고 끊었을 때, 상대방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전화 했었느냐고 전화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험과 이곳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핸드폰 전화비가 비쌉니다. 그래서인지 받는 전화는 정말 열심히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번호는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수도공이 필요해서 4명의 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모두 연결이 안됐는데, 이후 연락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받지 못한 전화 때문에 불안해 하며, 급하게 전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계속 전화해보는 것이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7월 19일부터 한 주간동안 있었던 성경학교에, 많은 이들이 교사로 섬겨서 훨씬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기도해 왔던, 유라 친구 체씨와 아빠 웨르난도와, 엄마 쏘치가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카톨릭인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끝나고 이들은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초대 되었을 때도, 궁금했던 말씀을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고 있는 카톨릭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교회에 정착하여, 진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멕시코 시티 (사진 첨부)

아이들 여권 연장을 위해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 영적, 육체적, 정서적인 쉼과 회복, 그리고 안내해 줄 사람을 붙여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4년 전 김금찬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셨던, 조영근 선교사님을 통해, 김진수 집사님 가정이 연결되면서, 숙소가 해결되고, 편하게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버스 정류장 픽업을 감당해 주셨고, 자녀 지해(중), 미담(초등)이와, 저희 집 아이들이 한국말로 맘껏 놀 수 있어, 정서적으로 회복을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 위의 불편으로 힘들어 하던, 아내 전순자 선교사가 한국 의사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위염과 위경련으로 진단해 주셔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멕시코 일정 가운데 짬을 내어, 그동안 기도해왔던 우남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수가 2-30만으로, 중남미 최대의 대학으로, 스페인어권의 중남미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올라오는 대학입니다. 저의 심정은 마치 약속

의 땅을 보는 갈렙의 심정 이었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김기홍 선교사 가정을 방문하여, 귀한 교제와, 식사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젊은이 사역에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를 10년 동안 지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김진수 집사님이 섬기는, 주이레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로, 영적인 부분을 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저희 가족 모두가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책 소개 -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책을 소개함으로 저희에게는 정서적인 자극이 되고, 동역자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건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두에 나눈 3가지 유익 중 몇 가지는, 이 책을 읽고 적용 해본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 실제적이고 풍성한, 영적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책의 한 부분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갚는 것에 대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함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롬12:19) 하나님의 종이, 주인 노릇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니, 그 또한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의 칼을 빼앗고, 권위를 침범했더니.....아~ 돌이켜 보니 내가 옳다는 이유로 참 많이 비방했고, 그리고 나의 정당함을 얼마나 많이 주장해 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죄였다니 참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억울함도 주님께 신뢰하면 내려놓는 신앙의 안목과 여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저의 비자가 10월에 만기가 됩니다. 만기되기 1달 전 부터는 서류준비를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영주권 신청이라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8월 말쯤 이민국을 2년 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늘 긴장하며 갔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 필요한 서류들이 어떻게 있을지? 이민국 방문을 몇 번이나 갈지? 이번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서류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영주권이 순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고로 아내와 아이들은 내년 3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족 이야기

이제는 제가 돌봐야만 하는 아이들과 가족이라는 생각보다, 동역자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아내의 내조에는 늘 감사할 뿐이고, 세 자녀는 부모의 사역을 조금씩 이해하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모임과, 주일 예배 때, 필요한 물품을 나르고, 예배 준비를 돕습니다. 현지 언어가 능통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단기선교사 2-3명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느새, 제 짐을 덜어 주고 있는 모습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노트와 책을 싸고, 껌매고, 붙이며, 6주간의 방학을 마무리하며, 학기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길대섭. 전순자 선교사(소라, 유라, 로열)드림



기도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교회와 사역

1. 두 세달에 한번 노회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노회장(이삭목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노회, 하나 되어 연합하는 노회가 되게 하소서.
2. 비다아분단떼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풍성케 하소서.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해 지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3. 동역하는 아브라함 전도사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돌로레사 아줌마(배에 물이 차며, 살이 많이 빠짐)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 주소서. 엘리세오(3세)의 당뇨를 제거 하여 주소서.

개인과 가정

1. 길대섭 선교사의 영주권 신청의 준비 서류를 위해 이민국을 방문합니다. 서류들이 잘 준비되며, 이민국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영주권이 순탄하게 나오게 하소서
2. 자녀들이(소라, 유라, 로열)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과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학과 수업을 잘 감당하며,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소서
3. 멕시코 사역의 열매를 보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돕는 이들을 때마다 붙여 주소서. 길대섭. 전순자 선교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사는 지혜와 은총을 은총을 부어 주소서
4. 스페니쉬 언어를 탁월하게 익혀 설교자로, 복음 전도자로, 제자 양육가로의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특히 전순자 선교사의 언어를 습득에 지혜와 건강을 주소서

멕시코 및 캠퍼스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꾀계를 결박시켜 주시며, 이 땅의 죄(문란한 성, 마약, 안전)가 제거 되게 하소서. 거짓 가르침이 드러나게 하소서
2. 땀뻘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신학을 공부할 학생들을 붙여 주시고, 재정이 공급되게 하시며,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 되어 이 땅의 복음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3. 캠퍼스와 젊은이를 위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소서, 유일한 삶의 희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의 삶이 거룩으로 빛어지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